

도입
기도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을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편안함을 선택하기보다 일관된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Tis so Sweet to Walk With Jesus

-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1. 'Tis so sweet to walk with Jesus, Step by step and day by day;
Stepping in His very footprints, Walking with Him all the way.
2. Though like little children we stand, Without wisdom, wit or strength,
Jesus leads us, safe, by the hand, Step by step the journey's length.
3. Whether through the meadows and flowers Or harsh vales, with feet that bleed,
Where He goes, the way will be ours, Step by step as He may lead.
4. Till like Enoch, we walk with God, Raised to heaven and heaven reward,
We would walk in faith, as he trod, Step by step, with Christ our Lord.

Step by step, step by step, I would walk with Jesus,
All the day, all the day, Keeping step with Jesus.

본문 다니엘 6:20-22

20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인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21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22 나의 하나님인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Daniel 6:20-22

20 As he came near to the den where Daniel was, he cried out in a tone of anguish. The king declared to Daniel, "O Daniel, servant of the living God, has your God, whom you serve continually, been able to deliver you from the lions?" 21 Then Daniel said to the king, "O king, live forever! 22 My God sent his angel and shut the lions' mouths, and they have not harmed me, because I was found blameless before him; and also before you, O king, I have done no harm."

다니엘 6장은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반대를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불러올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니엘의 정직함과 탁월함은 부패한 체제 속에서 그를 돋보이게 했지만, 바로 그 이유로 주변 사람들의 시기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흄을 찾을 수 없었던 그들은 결국 그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공격했습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조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타협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편리함보다 일관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늘 해 오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살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용기는 참된 하나님 신뢰가 편안한 순간이 아니라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순종 속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은 반대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하는 삶은 필연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에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생존이 인생의 최우선 목표가 아니라 신실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자 굴이 눈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자기 보호보다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반대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다니엘이 아무 해도 입지 않고 나오자,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일 뿐 아니라 그의 변호자이심이 온 나라 앞에 드러났습니다. 다니엘을 무너뜨리려던 사건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신실함이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입니다. 다니엘 6장은 궁극적으로 다니엘을 넘어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니엘처럼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지만, 그 의로움 때문에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달리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의 더 큰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순종에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함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 6장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반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를 편안함이 아니라 일관된 믿음에 두고, 자기 보호가 아니라 흔들림 없는 신뢰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끝까지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Daniel 6 reminds us that faithfulness to God does not remove opposition—it often invites it. Daniel's integrity distinguished him in a corrupt system, but that same integrity stirred jealousy among those around him. Unable to find fault in his character, his enemies targeted his devotion to God. The decree that no one could pray to anyone except the king was designed to force Daniel into compromise. Yet Daniel chose consistency over convenience. He prayed as he always had, not loudly for attention, but faithfully before the Lord. His courage teaches us that true trust in God is revealed not in moments of ease, but in quiet, unwavering obedience. Believers who trust and obey God should not be surprised by resistance. A life aligned with God inevitably challenges the values of the surrounding culture. Daniel understood that survival was not his highest goal—faithfulness was. Even with the lions' den before him, he chose obedience over self-preservation. But the story does not end with opposition; it ends with glory given to God. When Daniel emerged unharmed, it became clear that God was not only Daniel's refuge but also his vindicator. What was meant to destroy Daniel became a testimony to God's power before an entire kingdom. Faithfulness in private led to God's glory in public. Daniel 6 ultimately points us beyond Daniel himself. Like Daniel, Christ was innocent yet targeted by those threatened by His righteousness. Unlike Daniel, however, Jesus was not spared from death—He entered it willingly so that we might be rescued from the greater judgment of sin. Because of Christ, believers can remain steadfast, knowing that God honors faithfulness even when obedience is costly. The message of Daniel 6 is both sobering and hopeful: Opposition is not a sign that God has abandoned you; often it is the very stage upon which His glory will be revealed. Therefore, let our aim not be comfort, but consistency—not self-protection, but steadfast trust. For when believers remain faithful, God makes His name known.

1.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왜 평소처럼 기도했을까요?

Why do you think Daniel continued to pray as he always had, even when his life was at risk?

2. 편안함을 선택하고 싶었던 순간에 믿음을 타협하지 않은 경험이 있나요?

"Have there been moments when you were tempted to choose comfort, but chose not to compromise your faith?"

3. 우리 가정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In what ways can our family reflect God's faithfulness in the midst of the world?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순종이 손해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신실함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조용하지만 분명한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Faithful Father, We trust that the God who protected Daniel is the same God who walks with us today. Give us faith that does not compromise, even when obedience feels costly. In moments of opposition and fear, help us to trust You fully, and let our lives become a testimony that brings You glory. Teach us to walk the path of faithfulness, following the example of Christ, and make our family a quiet yet clear witness of Your truth.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1. 반대와 불이익 앞에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May we remain faithful to God to the very end, even in the face of opposition and disadvantage.

2. 편리함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정 안에 주소서.

Grant our family the courage to choose obedience over convenience.

3.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이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May our personal faith reveal the glory of God in public and visible places.